

2. 케리그마의 성격

먼저 케리그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공식화된 가장 오래 된 케리그마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.

1) 고린토전서 15장 3~8절

이것은 바울로 이전에 일찍이 교회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케리그마이다. 그 원형은 3절에서 5절까지이고, 그 다음 구절은 첨가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¹¹⁾ 바울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로 이전에 이미 교회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찰에는 별 중요한 의미가 없다.

이 케리그마를 보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.

첫째, 예수사건의 비역사화이다. 예수가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. 그러나 이 구문에서는 “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, 왜”라는 관심을 봉쇄한다. “성서에 기록된 대로”(κατὰ τὰς γραφάς)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구절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의 노력들이 있으나¹²⁾ 모두 가설에 불과하고, 이 본문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직결시킬 수 있는 구절은 없다. “성서대로” 또는 “우리의 죄를 위하여”(ὕπερ τῶν ἁμαρτιῶν)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사건의 역사적 진상의 진술을 회피하는 것이다.

11) H. Conzelmann, *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*, Meyers Kommentar V, 1969, S. 293~296; J. Jeremias, *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*, 1964, p. 101ff.

12) C. K. Barrett, *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*, Black's NT Comm., p. 337ff. ; H. Conzelmann, *op. cit.*, S. 296~301 참조.

둘째,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교권확립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. 첫 목격자를 게파, 즉 베드로로 한 것이라든지, 주의 형제 야고보를 부활 증인으로 열거한 것이라든지, 열두 사도라는 추상적인 집단개념을 사용한 것 등이 이런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. 우리는 게파에게 처음 나타났다는 기록을 가진 바 없으며,¹³⁾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, 그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. 오히려 복음서에는 예수의 형제들의 불신앙의 모습만이 전승되었을 따름이다. 그리고 열두 사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. 오히려 복음서에 따르면 열한 사도여야 할 것이다.¹⁴⁾ 바울로는 이 구절 외에 열두 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다. 그러므로 열두 사도라는 개념 자체가 교권의 상징 이상의 의미는 없다. 한편 부활의 목격자 명단과 그 배열순서도 역사적이 아니다.¹⁵⁾

셋째, 이것은 공적 성격이 뚜렷하다. 공적인 문서화에서는 언제나 외적인 조건을 의식하게 된다. 부활이 십자가의 수난사건과 유리될 수 없는 사건이며, 또 십자가사건의 역사적 현실을 규명해야만 그 사건의 의미로서의 부활의 성격도 분명해질 것이다. 그러나 이것이 공표될 때 예수를 처형한 로마제국이 엄연히 존재했고, 그것과 야합한 유다인의 세력층도 엄연히 존재해 있었다.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처형의 비리와 그것에 대한 원망 내지

13) 루가 24, 34에 부활증인의 우선권을 게파에게 돌리려는 흔적이 있으나, 이것은 이 케리그마와의 조화를 꾀한 후기 소산임이 틀림없다.

14) 마태 23, 16 이하.

15) 바르트가 이것을 역사적이 아니라고 본 데 대하여(K. Barth, *Die Auferstehung der Toten*, 1924, S. 74f.) 불트만은 바울로가 여기에서만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서 전제했다고 말한 것은 옳다. 그러나 부활사실이 역사적이라는 말과 목격자의 명단과 순서배열이 역사적이라는 말은 다르다.

는 한이 풀리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 있었음에 틀림없다. 그런 마당에 이런 형식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용납될 것인가! 단지 이런 형식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은 강력한 로마제국과 유다교를 의식하고, 그 안에서 제도화된 교회의 존립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, 따라서 사실과도 그리고 예수의 민중의 감정과도 크게 유리되는 표현일 수밖에 없다. 이 사실은 복음서의 수난사와 비교하면 더 확실해질 것이다.

2) 필립비서 2장 6~11절

이것은 이른바 ‘그리스도 찬가’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상당히 일찍 형성된 케리그마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인되어 있다.¹⁶⁾ 이 찬가는 시구(詩句)로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 운율적이다.¹⁷⁾ 그것은 그 내용상 세 가지로 구분된다. 첫째 시구는 선재자(2, 6~7a)에, 둘째 시구는 수육자(2, 7b~8)에, 셋째 시구는 올리운 자(2, 9~11)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. 이와 같이 시 형식으로 사변화한 것은 벌써 역사적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변화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.

이 찬가의 삶의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. 우선 팔레스틴 영역이라는 견해와 헬레니즘 영역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.¹⁸⁾

16) O. Hofius, *Der Christushymnus Philipper 2, 6~11*, J. C. B. Mohr / Tübingen, 1976, S. 1.

17) 분석은 O. Hofius, *op. cit.*, S. 20ff. 참조.

18) R. Deichgräber, *Gotteshymnus und Christushymnus in der frühen Christenheit*, Vandenhoeck & Ruprecht / Göttingen, 1967, S. 126ff. 참조. 다이히그레버는 그것이 팔레스틴 갈릴래아일 것이라는 로마이어의 주장에 반하여 언어적으로 보아서 출처가 헬레니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.